

3부

동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와
에스닉 경제



VII

심양_{沈阳} 서탑_{西塔}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

김혜련
한성대학교

중국 심양의 한인 디아스포라

1) 문제제기

국경을 횡단하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주의 시대, 이주민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문화접변지역, 즉 에스닉 타운 Ethnic town이라고 불리는 이주민 밀집지역이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이주민 밀집지역은 치안 및 빈곤문제로 거주국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되고 계도화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공간으로 인정받으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181개국에 분산거주 하고 있는 708만 재외동포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코리아타운을 조성해왔다.¹⁾ 코리아타운은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민족 정체성을 전승하고 민족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민족의 문화와 거주국 문화를 융합하는 복합적 문화플랫폼이기도 하다.²⁾ 2,109,727명³⁾ 재외동포가 정착하고 있는 중국에도 북경_{北京}, 심양_{沈阳},

상해^{上海}, 광주^{廣州} 등 대도시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심양은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1992년 한-중 양국 수교 이후 한국인의 심양 유입과 함께 현재는 한국인, 중국 조선족과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나아가 북한인이 공존하고 어울리는 초국가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봉천^{奉天}, 성경^{盛京}으로 불려왔던 심양은 중국 요녕성^{辽宁省}의 성도로 중국의 중요한 산업 중추이자 동북지역의 최대 도시이다. 2023년 기준 심양의 상주인구는 92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심양 거주 중국 조선족은 88,676명에 이른다.⁴⁾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심양 이주는 19세기 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서탑^{西塔}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전후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 한반도에서 심양 서탑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은 50여 가구에 달했다.⁵⁾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전환을 완성한 한인은 점차 서탑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서탑은 조선족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의 심양 진출과 함께 오늘날의 서탑은 조선족백화점, 조선족학교, 조선족 문화관이 운영되고 있는 조선족거리인 동시에 경희루, 백제원 등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공존하는 중국 국내 대표적 코리아타운이다. 비록 사드^{THAAD} 사태 이후 한중관계 악화, 한한령^{限韓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 강화, 중국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한국 기업 퇴출 등으로 코리아타운이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심양 서탑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공간이자 이주민 밀집지역이다.

19세기부터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이다. 바스치^{L.B.asch}는 초국가주의를 이주민들이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를 연결하는 여러 가닥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⁶⁾ 즉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국경을 횡단하고 가로지르는 사회적 장을 건설하며,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그들

만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도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이러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_{沈阳韩国周}”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 한인 경제인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한국인회, 조선족연의회 등 단체를 구축하면서 글로벌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한류의 영향과 함께 한국 위성 TV, 한국 대중문화를 공유하면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발전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존하는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적응 실태를 검토하고,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양시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조선족 5명과 심양시 거주 한국인 3명, 총 8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심양 거주 기간	직업
참여자1	전춘○ 全春○	6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반찬 가게 운영
참여자2	조운○ 曹云○	3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부동산 가게 운영
참여자3	로○ 罗○	2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대학생
참여자4	김해○ 金海○	5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화장품 가게 운영
참여자5	김동○ 金东○	4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물류회사 경리(经理)
참여자6	이재○	50대	남	한국	11년	식당 운영
참여자7	권선○	50대	여	한국	15년	화장품가게 운영
참여자8	김경○	60대	여	한국	23년	미용실 운영

심층면접은 현지조사 기간 심양시 서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 총 8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모두 심양 서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이며,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초국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활한 심층면접을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정착 실태, 초국가적 공동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심층면접 참여자는 심양시 거주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포함되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된다. 또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코리아타운에서 식당 혹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주민 밀집지역의 초국가 공동체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이주민의 이국적 문화 자원이 인정받고 이주민 밀집지역이 도시 재생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59만 명⁷⁾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천 차이나타운, 대림 차이나타운, 몽골타운, 중앙아시아거리, 고려인마을 등 이주민 밀집지역의 화제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학계에서의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손꼽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연구는 대부분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전 즉 코리아타운 전성기에 이루어졌으며,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폭 감소된 실정이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중국 학계의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탑거리^{西塔街}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위이핑⁽²⁰⁰⁷⁾은 현재의 심양 서탑거리를 “리틀 서울^{小汉城}”으로 표현하면서 중국 조선족의 서탑지역 유입 역사와 백여 년 전의 빈민촌^{棚户区}에서 오늘날의 서탑거리로 발전된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⁸⁾ 지귀시우·리샤오린^(吉国秀·李晓林, 2015)은 공간사회학 이론으로 심양 서탑을 접근함으로써 서탑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공간, 마을 공간, 조선인 밀집지역을 거쳐 현재의 조선족 문화 특색 거리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⁹⁾

둘째는 코리아타운 정착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이다. 류위통·탕메이^(刘昱彤·唐梅,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탑 코리아타운은 길림^{吉林} 연변^{延边} 지역 이외 중국 조선족이 가장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코리아타운을 중심

으로 그들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이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¹⁰⁾

셋째는 코리아타운의 상권 및 경제 성장 관련 연구이다. 귀명치(郭夢琪, 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상(韓商)과 그들의 경제활동에 주목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은 한상의 투자와 한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류치우웨이(劉秋月, 2012)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경제 발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인문 경관, 역사 문화,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거대한 상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심양시의 지원과 조선족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¹²⁾

이렇듯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을 서탑거리(西塔街)로 지칭하면서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 경제 성장, 아울러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중국 학계와 달리 한국 국내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 도시 포용성 등 주제로 코리아타운을 접근하고 있다.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축제문화 관련 연구이다. 신춘호(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 “2010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 개최 과정과 행사의 성격,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류행사가 한국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신한류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 임영상(2014)은 미국 로스앤젤리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조선족련의회, 조선족민속절, 심양한국주 등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¹⁴⁾ 송해련(2017)은 에스닉타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에스닉 축제라고 주장하면서 심양한국주 축제와 심양조선족민속절을 중심으로 서탑 코리아타운 축제 지식맵을 구축하였다.¹⁵⁾

둘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관련 연구이다. 이심홍·김민형(2020)은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규명하기 위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기반으로 코리아타운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나아가 시기별로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요컨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지만, 한중 양국 학계의 기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 전통문화, 민족축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코리아타운 내부에 형성된 초국가 공동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7년 사드 사태이후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현주소를 규명하고, 아울러 초국가주의라는 이념 하에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주민 밀집지역과 디아스포라의 초국가 공동체

이주민 밀집지역은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이주민 집단이 거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자적 생존전략으로서 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이주민은 이러한 밀집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모국의 전통과 문화를 재생하는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브람슨(Abrahamson)은 이주민 밀집지역의 설립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이주민 집단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주민 집단의 전통적 문화 상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상업구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이주민 집단의 문화 및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¹⁸⁾

이주민 밀집지역은 거주국과 이주민의 모국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인 동시에 이주민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된 공간에서 집중 거주하면서 모국에 대한 향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공동체이기도 하다.¹⁹⁾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을 근대이후 형성된 역사·사

회적 구축물로 이해하면서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민족은 지리적·물리적 거리를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앤더슨은 민족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이해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는 ‘현실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 변모된다고 지적한다. ‘현실 공동체’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동유대가 형성되며, 아울러 특정 공간 및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기존의 ‘상상 공동체’가 현실 속의 공동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²¹⁾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이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현실 공동체’이다. 다른 한편, 정보기술 및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상상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가 구성원 간의 소통, 교류 등 상호작용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상상의 공동체’는 ‘가상의 공동체’로 변모한다고 설명한다.

중국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沈阳西塔民族文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현재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 활동, 문화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초국가 공동체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성에 주목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발전, 그리고 위기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위해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이주 역사와 코리아타운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서탑이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서탑 이주

요녕성(辽宁省)의 성도 심양시(沈阳市)는 동북지역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교통·군사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국 유입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한반도의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심양조선족지(沈阳朝鲜族志)』의 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로 한인이 서탑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931년 기준 심양시에는 이미 5,425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941년에는 한인 규모가 46,125명으로 증가하였다.²²⁾ 심양시 정착 한인의 규모가 증가하자 점차 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화평구(和平区) 서탑지역이다.

서탑(西塔)이라는 지역 명칭은 심양시의 4개의 탑에서 유래되었다. 서탑은 청태종(清太宗) 황타이지(皇太極)가 건립한 동, 서, 남, 북 4개 탑 중 서쪽에 위치해 서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643년에 착공해 1645년에 준공한 서탑 아래에는 연수사(延壽寺)라는 사원도 함께 건축되었다. 1980년대 동, 남, 북쪽에 위치한 3개의 탑은 정부 지원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서탑의 경우 1968년에 철거되었다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심양시정부에 의해 복구되었다.²³⁾

〈사진 1〉 심양시 서탑(西塔)과 연수사(延壽寺)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심양역 근처에 위치한 서탑은 교통이 편리하고 장사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많은 한인들이 유입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 전환한 한인은 서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서탑지역은 심양 시내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으며, 한민족 음식서비스업의 발원지가 되었다. 조선족은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해 점차 냉면, 김치 등 민족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서탑지역을 조선족거리로 발전시켰다. 심양시의 빈민거리에 불과했던 서탑은 조선족의 유입과 정착에 따라 조선족민족집거지로 성장하였다.

100여 년 전부터 심양 서탑지역으로 유입해 생활해온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백화점(沈阳朝鲜百货), 조선족전통시장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조선족병원을 설립해 그들의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조선족문화예술관을 설립해 조선족의 전통 문화를 꾸준히 전승해왔으며, 조선문서점을 운영해 민족도서의 출판, 판매를 지원하였다.

〈사진 2〉 심양 서탑의 조선백화(朝鲜百货)



〈사진 3〉 심양 서탑의 전통시장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다른 한편, 심양 서탑지역에는 차세대 조선족이 그들의 민족언어와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민족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족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탑에는 서탑조선족소학교(西塔朝鲜族小学)와 심양시조선족제6

중학교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1920년에 설립된 서탑조선족 소학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78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²⁴⁾ 서탑조선족소학교와 인접해있는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기준 51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08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²⁵⁾

〈사진 4〉 서탑조선족소학교



〈사진 5〉 심양시조선족제6중학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2)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심양 서탑의 비약적 발전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개혁개방 당시 서탑은 “질퍽이는 골목길과 난잡한 상점, 허물어진 벽돌담과 일그러진 양철지붕”²⁶⁾이 전부였다. 이때의 서탑은 여전히 빈민촌에 불과했다. 1988년 심양시전기기계국주택개발공사가 서탑을 심양 조선족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건설하고자 공사를 시작하였다. 3억 6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서탑의 중앙로를 확장하고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 백화점, 병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녹색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6년 정도 지연되었다.²⁷⁾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함께 심양 서탑지역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탑의 개발과 발전은 다시 가속화되었다. 한중수교이후 심양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탈바꿈하였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500m가량의 서탑가를 중심으로 2.58km² 부지에 상가와 주거단지가 밀집해있다.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사업목적으로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은 중국어능력 미흡,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나타나는 현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족이 밀집거주하는 서탑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말 서탑에서 첫 한국식당이 오픈하고, 한국 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 등이 있다.

다른 한편, 백제원·신라성·경회루 등 한국식당이 운영되고 조선족, 한국인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권이 형성되자 2005년 이후에는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도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기타 소수민족은 물론 한국인, 북한인 등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만남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서탑 코리아타운은 국경을 초월하는 명실상부한 초국가 공간이다.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_{沈阳西塔民族文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는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민족경관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한글간판은 물론, 장고·한복 등 한민족 문화요소를 나타내는 건축이나 조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냉면·김치·떡·삼계탕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나 식당도 즐비하다.

참여자 1: 나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어요(웃음). … 서탑은 “작은 한국(小韩国)”으로 불려요. 여기 오면 없는 것이 없어요. 김치, 순대, 삼계탕, 된장, 고추장 … 옛날에는 조선족이 김치 사러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한족사람이 더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이제는 조선족보다 한족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조선족은 한국에 많이 가고(한숨).

참여자 6: 중국에서 최대 코리아타운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탑에서는 우리 한민족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한글 간판, 한복, 한식, 한국 사람도 오면 깜짝 놀라요.

〈사진 6〉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경관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3)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심양 진출, 대한항공의 심양 노선 취항과 함께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탑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서탑지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는 한국인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를 계기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를 중국사회로 홍보하는 창구로 거듭났고, 2014년에는 한중교류문화원이 개원했다.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리틀서울(小汉城)”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불야성으로 불리던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는 사드^{THAAD} 사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선린우호관계^{善邻友好关系}’로부터 시작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발전한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한한령^{限韩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한류^{韩流}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대규모의 한국인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다시 말해 한중 양국 간의 정치 갈등, 한한령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심양 진출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퇴출하기 시작했으며, 서탑 및 심양에 거주하고 정착하던 한국인의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자 7: 사드 때문에 한동안 험한정서 심했어요. 서탑에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한류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한식 먹어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이 왔는데, 사드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반 이상은 줄었어요. 그때 문닫는 가게 정말 많았어요.

참여자 8: 코로나 때 한국사람 많이 들어갔죠. 초반에는 중국에서 (코로나)단속 강하게 하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시 봉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 못 버티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입되면서 조성된 초국가 공간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구축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초국가 경제공동체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조선족이 유입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조선족집거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면서 상권이 한층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는 초국가 경제공동체로 발돋움 하였다.

〈지도 1〉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상권



출처: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29.

현재 서탑가를 중심으로 양측에는 대략 140여개의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요식업체이다. 또한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반찬가게, 환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이 있고,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구축한 초국적 경제공동체이다. 서탑 코리아타운에 이러한 상권과 경제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개최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심양시정부와 한국주심양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0회 개최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는 한중 양국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를 통해 한국기업과 중국(조선족)기업의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도 촉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23년 9월 25일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을 함께 도모하며,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共享机遇·共谋发展·共创未来}”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심양한국주’ 행사에서는 한중 양국 기업이 159개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고, 2,613억위엔의 투자를 유치하였다.²⁸⁾ 일주일동안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3년의 경우, 기업전시회를 운영해 한중 양국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LG전자,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농심 등 한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해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경제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심양한국주’ 기간에는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패션쇼, 미식회를 개최한다. ‘심양한국주’ 기간에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한민족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복 퍼레이드는 물론, 한민

족의 문화를 선보이는 전통 공연, 나아가 한식을 맛볼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미식회(美食會)도 개최한다.

참여자 3: 한국주는 심양이나 서탑에서도 중요한 행사예요. 요즘에는 미식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서 중국 친구들로 관심가지고 찾아와요. 서탑에 오면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한식도 먹어볼 수 있어서 특히 한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참여자 6: 심양에서 한식, 조선족음식을 맛보려면 사람들이 먼저 서탑을 떠올려요. 그만큼 서탑에는 한국식당도 있고, 조선족 식당, 그리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북한식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삼계탕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다양해요. 한국사람, 조선족, 지금은 한족이 제일 많아요.

참여자 2: 서탑은 이미 큰 상권(商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한국사람도 있고, 북한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족이 장사를 많이 해요. 반찬가게도 이전에는 다 조선족이었는데, 지금은 한족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조선족, 한국사람, 그리고 북한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여자 5: 저희 물류회사는 주로 한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한국 기업과 교류를 제일 많이 해요. ... 사무실을 서탑에 두고 있는 이유도 한국인과 더 쉽게 만나고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울리고 공존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이미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되었다. 특히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 북한인, 그리고 중국 한족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2) 글로벌 사회공동체

서탑 코리아타운에 유입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사회공동체가 구축되었다. 다양한 사회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심양조선족련의회(沈阳朝鲜族联谊会)와 심양한국인(상)회이다. 1988년에 설립된 심양조선족련의회는 조선족의 친목 도모를 취지로 설립된 사회단체로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심양시조선족청년협회,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 등 다양한 조선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²⁹⁾ 다른 한편, 심양 한국인사회에서 대표단체로 손꼽히는 심양한국인(상)회는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심양 조선족사회와 한국인사회를 대표하는 심양조선족련의회와 심양한국인(상)회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두 단체는 서탑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미식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민족 전통명절 축제인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도 함께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심양시 조선족과 한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서탑 코리아타운의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민간단체에 의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개인생활에서도 잘 체현되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거주지역이 중첩되고 같은 상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교류와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의 교류가 확인되었다.

연구자: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은 어느 정도로 교류하고 있나요?

참여자 4: 거의 매일 한국사람 만나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도 많고요. 저는 화장품 가게를 하다보니까 한국 손님이 많아요. 저도 한국 자주 가요. 서탑에서는 한국사람 만나는거 일상이에요.

참여자 2: 저희 아파트 위층에 바로 한국사람 살아요. 그 친구가 또 서탑에서 식당도 하고 있어요. 자주 만나죠. 그 한국 친구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하고 … 말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편하게 만나요.

참여자 8: 한국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조선족을 통해서 자리 잡았잖아요. 우리는 중국말도 모르고 여기 문화도 모르니까 … 조선족과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공존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민족단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글로벌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국제정세의 변화, 한중관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모순이 동반되는 등 미묘하게 변화되기도 한다.

3) ‘한류’ 중심 문화공동체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곳곳에서 ‘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민족 문화공동체는 1998년 심양에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 KBS, MBC, SBS를 비롯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조선족은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 한령이 발표되기 이전, 중국은 한류의 진원지이자 한류 확산의 거점기지였다.³⁰⁾ 1997년의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해 “가을동화”, “겨울연가”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2005년에 방영된 “대장금”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한류韓流’는 드라마를 넘어서 K-Pop, 한국 영화, 한국의 언어, 음식, 패션, 메이크업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³¹⁾ 한류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조선족이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국 조선족은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여자 1: 집에 당연히 한국 TV 나오지요. 매일 봐요. 드라마도 보고, 전국 노래자랑도 보고. 없으면 안돼요. 한동안 안테나 설치 불법이라고 떼어간 적도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 주변 조선족 친구들은 다 한국 TV 보고 있어요.

참여자 2: 저희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 TV를 접했고,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드라마 많이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에게서 한국 문화가 익숙해요. 한한령 때문에 한류가 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중국 친구 많아요.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중국 조선족은 점차 심양 정착 한국인과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 8월 한인회가 주최하는 서탑 거리 공연 ‘동북3성 한민족화합노래자랑’에 중국 조선족이 함께 참여하였고, 2000년 10월에 개최된 ‘2000 심양 미소조선족 선발대회’는 심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이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리고 2009년 심양에서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은 한민족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과 조선족의 화합의 장이었다. 나아가 2002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 행사와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미식회”에서 서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은 협력하여 한복 퍼레이드, 전통 문화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문화공동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공존의 장

전 세계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708만 한인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 미국의 LA와 뉴욕,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루 등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거주하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실태, 그리고 사드 사태 이후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유입은 1910년 전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통이 편리한 서탑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들만의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심양시의 빈민촌에 불과했던 서탑지역은 조선족 유입 이후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어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점차 심양 조선족사회의 경제·사회·문화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현재의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비록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인의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코리아타운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서탑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이다. 이 연구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서탑지역에 구축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심양시 주요 상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초국가적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치과, 미용실이 있으며,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가 있다. 즉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거대한 경제공동체이다. 다음,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한 사회공동체이다. 서탑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조선족련의회, 심양한국인(상)회를 비롯한 그들만의 사회단체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사회단체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

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공동체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민족언어와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에 공감하면서 서탑 정착 한국인과 문화행사를 함께 하는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김혜련, 「중국 선양(沈阳) 시타(西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18(1),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24

〈저자소개〉

김 혜 련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

저자 김혜련은 중국 심양공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화교·화인, 다문화, 재외동포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공저서로는 『화인 디아스포라의 현지적응과 정착 기제』 『화인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 『화인 디아스포라의 이주 흐름과 초국가적 공동체』 등이 있다.